국내
긴급시황

2026.2.2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증시 하락 배경 점검과 전망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직에 케빈 워시 지명
매파적 인물로 평가되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KEY DRIVER

- 금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내외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이후 자산가격 전반이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은 0.43%, NASDAQ은 0.94%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7% 내렸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 가격은 11%, 은 가격은 26%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시 하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빈 워시는 그간 알려졌던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중 상대적으로 매파 성향의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워시는 물가 안정을 중요시했고, 연준의 양적완화(QE)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 워시의 연준 의장직 지명으로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면서 美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 케빈 워시가 이끄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과도한 우려는 점차 잦아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케빈 워시가 5월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을 때 실제로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워시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는 비판적이지만, 경기 여건에 따른 기준금리 조정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따라서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급격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두 차례의 美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둘째, 실제로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022년 이후 연준이 양적긴축(QT)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Non-US 지역의 상대적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신흥시장 국채 스프레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셋째, 美 증시에서도 IT H/W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는 점은 해당 업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 ROE 대비 P/B가 가장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코스피 5,000pt 기준 12개월 선행 P/E는 10.9배, P/B는 1.46배 수준입니다.(LSEG 기준) 12개월 예상 ROE는 13.4%로, 이에 적정한 12개월 선행 P/B는 2.1배입니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자산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기에 한국 증시 또한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으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선택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1월 한 달간 코스피는 24% 올랐습니다.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케빈 워시의 지명이 차익실현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연준의 정책 신뢰도와 독립성이 회복되며 주식시장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